AI 융합으로 광주 대표산업 키운다

AI사업단 'AI+X 지역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모빌리티·에너지·헬스케어 분야…과제당 1억2000만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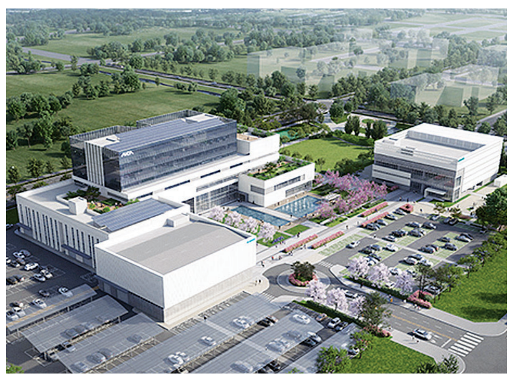
인공지능(AI)이 단순한 업무 효율화 도구를 넘어 광주시민의 일상 속에서 필수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 대표 주력 산업인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분야에 AI를 융합해 시민 생활에 밀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23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사업단)에 따르면 '2025년 AI+X 지역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것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에 자리 잡은 AI 전문기업이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AI 기반 신제품·서비스·솔루션을 개발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AI 산업융합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존 산업의 혁신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최대 1억 2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감도.

선정된 업체는 또 광주 첨단 3지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AI 집적단지) 내 AI 데이터센터에 구축된 GPU 기반 고성능 컴퓨팅 장비를 활용해 AI 융합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광주지역에 본사나 지사 또는 연구소를 둔 AI 전문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반도체, 데이터산업, 모빌리티, 문화콘텐츠, 에너지, 메디헬스케어, 광융합·가전, 스마트뿌리 등의 분야에 관련된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도 있다.

다음 달 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과제가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AI 기업과 지역 기업·기관 간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의 대표 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광주가 AI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은행 '금융현장소통 톡톡자문단' 간담회

금융 애로사항 듣고 개선점 논의

광주은행은 "지난 19일 광주시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금융현장소통 톡톡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김은호 광주은행 부행장, 이길성 금융감독원 현장소통담당관, 강인근 은행연합회 차장을 비롯해 광주은행 고객 패널인 톡톡자문단 6명과 광주은행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톡톡자문단 고객 패널들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불편한 점 등 금융서비스 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금융상품 비교정보 플랫폼 구축, 모바일·온라인 대출 과장 광고 규제 강화, 대출 거절 사유 통지 의무화 등 금융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공유했고, 금융감독원 등 금융현장소통반은 의견을 수렴했다.

김은호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간담회는 고객의 목소리를 듣을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더욱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고객 입장에서 금융서비스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고객 패널 제도인 '톡톡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전력 수요·회복기 물가 고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된다.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로 인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3개월 간 연료비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막대한 누적적자와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은 "올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1kWh(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전의 수익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연료비조정요금은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바뀌는 최근 3개월의 단기간 에너지 가격 흐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매 분기별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분기의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1kWh 당 ±5원 범위에서 결정한다. 연료비조정요금 외에도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모두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전체 전기요금 역시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이 회복기에 접어든 전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3년째 연료비조정단가를 최대치인 +5원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전력당국이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별도의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한전이 200조원이 넘는 부채와 43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3개월 간의 연료비 하락 추세를 반영하면 올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1kWh 당 -6.4원 수준까지 내려갔어야 한다.

하지만 전력당국은 올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역시 여전히 30조원을 넘는 누적적자가 남아있는 한전의 재무 상황 및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치인 1kWh 당 +5원을 유지할 것을 한전 측에 통보했다.

한편 전력당국은 지난해 10월 24일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했다. 이 밖에 산업용 전기요금은 몇 차례 인상이 있었지만, 고물가로 인해 주택용, 일반용 등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았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 고속도로' 개통은 한전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기 위해 한전이 맡은 서해안 초고압직류(HVDC) 송전망은 총 620㎞에 달한다. 신해남~태안~서인천 구간이 430㎞, 새만금~태안~영흥 구간이 190㎞다.

에너지 고속도로에 투입되는 비용은 7조 9000억원, 예상되는 전력 송전량은 8GW에 이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저출생…산후조리원 4% 줄고 단가는 24% 뛰어

수요 줄자 가격 올려 매출 보전

저출생으로 산후조리원 등 영유아 관련 시장이 위축되면서, 업체들이 가격 인상 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23일 하나카드의 2019~2025년 신용·체크카드 결제 데이터(승인금액, 가맹점 수)를 기반으로 국내 소호 세부 업종을 분석한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소호 업종 점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소호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호 시장에서 출생아 수 감소는 관련 업종 수요 위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매출 보전을 위한 가격 인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산후조리원 가맹점 수는 2022~2024년 연평균 4.0%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연 평균으로 전체 승인 건수가 16.8% 줄어든 반면 건당 승인 금액은 23.6% 증가해 승인 총액은 2.9% 늘었다.

산후조리원 외에 소아청소년과, 아동복 판매점, 입시 보습학원 등에서 수요 위축과 가격 인상이 관찰됐다.

특히 필수재 성격이 강한 의료, 교육 부문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연구소는 시장 위축과 가격 인상에 따른 출생아 수 감소가 사업체 감소·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점포 접근성과 육아비가 상승하면서 육아 부담 확대, 저출생으로 다시 연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저출생·고령화로 '돌봄' 시장은 확대되는 분위기다.

연구소에 따르면 약국, 동물병원, 신경정신과, 요양원 등 업종에서 사업체가 증가했다.

세대별 소비 특성도 달라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소비자의 소호 시장 영향력이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입시학원의 50대 매출 비중은 2019년 18.7%에서 2024년 26.9%까지 커졌다. 은퇴 이후 재취업 수요가 늘면서 기술·전문 훈련학원의 50대 매출 비중 역시 2019년 26.5%에서 2024년 32.6%로 높아졌다.

스스로를 가꾸고 여가를 즐기는 소비도 증가했다. 피부·체형관리소의 50대 매출 비중은 2019년 17.6%에서 2024년 22.0%로 확대됐으며, 여행사의 경우 2022년 21.8%에서 2024년 25.5%로 증가하면서 업종 회복을 견인하기도 했다.

20대의 소비는 변화가 빠르다는 특징을 보였다. 20대 사이에서 셀프사진관, 코인노래방 등의 인기가 줄면서 사진관은 2024년부터 성장이 둔화했고 회복세를 보이던 노래방도 2024년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트렌드한 이색 메뉴 가득…뉴 식당가 오픈

안유성 쉐프 '명장미가' 선보여

미국식 중식당 '피에프창' 문 열어

광주신세계는 "26일 본관 지하 1층 식당가에 최근 '흑백요리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확산된 미식 트렌드를 반영한 레스토랑을 오픈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광주지역 대표 쉐프인 안유성 명장의 '명장미가'를 백화점 업계에서 최초로 선보인다. 안유성 명장은 '대한민국 16대 조리 명장'으로 지난 2002년 문을 연 '가매'를 시작으로, '광주옥1947', '장수나주곰탕', '장수회관'을 운영하며 남도의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명장미가 대표 메뉴로는 '남도들녘 모내기 정식'이 꼽힌다. 남도들녘 모내기 정식은 보쌈과 강된장, 야채, 밑반찬 등 남도의 모내기 밥상 구성으로 차려진다. 또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더해 2인 메뉴인 '게장정식'과 양념꽃게장, 산낙지 칼제비, 장수나주곰탕, 메생이국, 들기름메밀면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명장미가 대표 메뉴 '남도들녘 모내기 정식'.

피에프창 대표 메뉴 '창스 치킨 레터스 랩'.

명장미가는 백화점 오픈 기념으로 오는 30일까지 5만원 이상 결제 시 '안유성 참치액, 꽃게장' 중 하나를 선착순 증정하고, 선착순 입장 30명을 대상으로는 '안유성 자연육수'를 제공한다. 더불어 여름 시즌메뉴인 '들기름비빔면', '평양냉면'을 300개씩 20% 할인가에 판매한다.

같은 날 미국식 중식당 전문점인 '피에프창'도 광주신세계에 문을 연다. 피에프창은 지난 1993년 미국 아리조나 1호점 오픈 이후 전세계 25개국에 370여개의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다.

대표 메뉴로는 '창스 치킨 레터스 랩', '몽골리안 비프', '바비큐 메가 폭립', '완탕 수프' 등이 있다. 피에프창은 오픈 기념으로 선착순 500명 한정으로, '창스 치킨 레터스랩'을 50% 할인가에 선보이는 이벤트도 펼친다.

김영민 광주신세계 식품생활팀장은 "광주신세계는 최신 트렌드에 발맞춰 지역 고객들께 새로운 미식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레스토랑 식당가 오픈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6월 1~20일 수출 8.3% 늘었다

美 관세에도 반도체·車·선박 호조

6월 월간 수출 증가 전환 가능성

6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액은 387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 수출액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7억6000만 달러로 12.2% 늘었다. 지난 1~20일 조업일수는 14.0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일 적었다.

1~20일까지 수출 증가 폭이 1~10일(5.4%)보다 더 커지면서 월간 기준 수출액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3% 줄면서 넉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양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수출이 각각 8.1%, 8.4% 줄면서 미국의 무차별 관세정책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도체 단가 상승 등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고 승용차도 유럽을 중심으로 늘었다"라며 "반도체는 아직 미국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지 않아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간 기준으로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중동 전쟁으로 해상 무역이 제한받을 수 있는 만큼 변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1.8%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승용차(9.2%), 선박(47.9%) 등도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0.5%), 무선통신기기(-33.1%) 등에서는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4.3%), 유럽연합(EU·23.5%), 대만(46.3%)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고 중국(-1.0%), 베트남(-4.3%) 등은 줄었다.

1~20일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5.3% 증가했다.

반도체(19.0%), 기계류(8.8%), 가스(9.3%) 등에서 수입이 증가했고 원유(-0.6%), 석유제품(-17.4%) 등에서는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4%), 미국(4.8%), 일본(12.1%) 등에서 수입이 늘었고 EU(-1.5%), 호주(-10.6%) 등은 줄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14.47 (-7.37)
↓	코스닥	784.79 (-6.74)
↑	금리 (국고채 399년)	2.498 (+0.035)
↑	환율 (US D)	1381.85 (+16.25)

〈오후 4시 35분 기준〉

최근 5년 광주시 물가 연 평균 3.2%씩 올랐다

유가·신선식품 상승 이끌어

최근 5년(2019~2024년) 간 광주시 소비자물가가 연 평균 3.2%씩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코로나 19에 이어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2022년 이후 국제 유가 폭등 및 이상기후 악화로 인한 신선식품 물가 상승분이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광주시 소비자물가 변화'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시 소비자물가는 15.9% 올랐다. 상승폭을 기간별로 환산하면 연 평균 3.2%, 분기 평균 0.6%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품 물가가 19.1%, 서비스 물가는 12.9%씩 상승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최근 5년동안 오른 소비자물가를 1구간(2019년 1분기~2020년 2분기), 2구간(2020년 2분기~2022년 3분기), 3구간(2022년 3분기~2024년 4분기)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분석했다. 각 구간은 소비자물가 변동폭이 컸던 구간을 나눈 것으로, 1구간은 코로나 펜데믹 이전, 2구간은 코로나 펜데믹~러-우크라이나 전쟁, 3구간은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반영 구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 지역민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는 5년 동안 총 18.2% 올랐는데, 매년 3.6% 이상 오른 셈이다. 전반적인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 상승에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폭 증가 및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농산물 물가 급등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제 유가가 1구간에서 -8.8~-33.4%로 하락세를 보이며 광주시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0.2~0.4%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구간에 접어들어 2021~2022년에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64.1%, 38.9% 등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2.6~5.1% 상승했다.

신선식품 물가 상승폭도 컸다. 최근 5년간 광주시 신선식품 물가는 36.5% 뛰었다. 연 평균 7.3% 수준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침체에 이어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 등이 겹치며 신선채소가 55.9%, 신선과실 36.2%, 신선어개 18.0% 등의 상승폭이 컸다. /장윤영 기자 zzang@